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됐다

한국의 전통 종합예술인 탈춤이 ‘한국의 탈춤(Talchum·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사진)’이란 이름으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 문화재청은 이날 “모로코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탈춤’은 2020년 4월 유네스코 본부에 등

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한국의 탈춤’은 모두 18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양주별산대놀이·통영오광대·고성오광대·강릉관노가면극(강릉단오제)·북청사자놀이·봉산탈춤·동래야류·강령탈춤·수영야류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속초사자놀이(강원)·퇴계원산대놀이(경기)·진주오광대(경남)·김해오광대(경남)·예천청단놀이(경북) 등 5개 시·도 무형문화재다.

현재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탈춤 외에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2009), 가곡·대목장·매사냥(2010), 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연등회(2020)가 있다.

가구당 평균 부채 1억원 육박

올 3월 기준 한국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9,000만원을 돌파,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자산, 소득, 처분가능소득규모 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8,801만원이던 지난해보다 4.2%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6,803만원)는 지난해보다 4.4%, 임대보증금(2,367만원)은 3.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평균 1억2,328만원,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1억2,3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가구의 57.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 가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금융자산에서 7.1%, 실물자산에서 9.5% 각각 증가했는데, 실물자산의 증가 요인은 지난해 가파른 집값 상승 등 거주 주택 자산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올해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3월 말 기준이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예상 은퇴 연령은 평균 68세였는데, 실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은퇴 연령은 62.9세로 이보다 5년 가량 빨랐다.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서울시,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폐지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해 향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사진=shutterstock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1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온드 존닝’ (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온드 존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